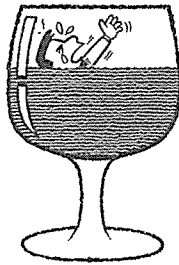


대학생 음주 현황과 건강의 피해



1. 대학생 음주현황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에 의하면 98년도 대학생 음주자의 비율은 93%(남학생 94.3%, 여학생 91.4%)로서 미국 대학생 음주자 비율 86%를 능가하고 있다. 여학생의 음주량은 남학생보다 낮은 편이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최초 음주시기는 고교재학시가 39.7%로 가장 많았으나 30.7%가 이미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대학생의 음주 빈도를 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며 남학생의 24.3%, 여학생의 8%가 폭음하는 것(1회 이상 음주 시 5잔 이상 섭취)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학생의 1/3 정도가 음주량이 14잔 이상(맥주 작은 병 1병과 소주 1잔을 표준 잔으로 함)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자주 그리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을 마시는 경우 1차에서 끝내는 경우는 드물고 최소한 2차까지 가는 경우가 전체 대학생의 과반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의 41.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경험하는 문제도 다양하여 결석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 술 마신 다음날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그리고 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대학생의 14% 정도가 우리가 무심코 일컫는 알코올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사고 상 또는 인간관계(9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선후배, 친구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등에서 음주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화를 풀기 위해서(65%) 또는 근심을 잊기 위해서(40%) 등 스트레스 관련 요인도 있다.

1998년도에 시행된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신입생 환영회 정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사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

의 음주율은 86.1%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음주율을 전체 20대 음주율과 비교해 보면 전체군에 비해 대학생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 20세 대학생의 경우 93.9%가 현재 음주자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성인의 음주율은 남녀 모두 2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자의 경우 20대, 30대, 40대 음주율이 각각 89.8%, 89.9%, 85.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20대, 30대, 40대가 각각 77.2%, 68.3%, 53.3%로 나타났다.

2. 음주로 인한 대학생의 건강 피해

대학 생활에서 음주와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로서는 먼저 학습 수행 능력의 저하나 심각한 학업 성과의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음주 후 원하지 않는 성 관계를 갖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술을 마시고 대인관계가 악화된 경우나 주위의 비난 때



대학생 음주자와 20대 전체인구의 연령별 비율(단위:%)

만연령	전체	대학생전체
20대전체	83.0	86.3
20	88.0	93.9
21	82.2	76.9
22	85.9	90.6
23	85.3	85.4
24	84.6	94.6
25	79.5	78.1
26	81.8	84.0
27	85.1	84.6

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 등이다.

또한 음주는 감정 조절 및 판단력을 점진적으로 상실시켜서 나아가서는 행동 장애, 정서장애, 정신장애와 반사회적 행동, 법범 행위를 유발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음주가 지속되면 불면, 손 떨림, 공포감, 환시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알코올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알코올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1997년 대학생알코올 문제 예방 협회의 결성 후 대학 내의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심이

시작되었고 학생들 중심의 “바커스”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학업에 전념하고 생산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준비시기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진전되게 된다.

대학생의 음주 성향은 성격 발달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갈등, 소외감 등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홍종필, 1989).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를 택하는 것으로도 보고

되고 있다(김규진 등, 1997).

일반 사회에서 허용되는 용도 이상의 알코올을 과량으로 섭취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적 행동 장애를 알코올성 장애라고 정의할 때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알코올성 장애를 가지는 비율은 약 1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이미형외, 1999). 남자의 알코올성 장애는 15.6%, 여자는 6.7%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9.9%, 2학년 11.8%, 3학년 28.3%, 4학년 36.8%로 나타나 알코올성 장애가



장기적인 음주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 형태별로 보면 하숙이나 자취하는 경우 알코올성 장애의 정도가 높았다(자취 및 하숙 17.3%, 자택 10.1%). 또한 대학생의 알코올성 장애는 청소년기부터의 문제성 음주 결과로 기인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의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해방된 대학의 자유로운 환경이 무분별한 음주 습관을 형성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음주 습관이 군복무 후 대학생 생활의 음주 행동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종교의 유무별로 보면 불교와 무교의 집단에서 비교적 다른 집단보다 알코올성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 음주로 인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다음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알코올성 장애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교정 받도록 한다.)

- 1)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
- 2)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음주를 시도함.
- 3) 음주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킴.
- 4) 음주로 인해 사회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를 지속함.

* 상담 서비스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제대 음주연구소, 대한보건협회 등

3. TV에 비쳐진 대학생 음주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TV모니터링 결과 대학생 층의 음주 장면은 전체 음주 장면 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이 높은 한 TV 방송에서

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도 빈번히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술이 허용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모습 등에서 대학생과 음주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이 TV모니터링은 우리 나라의 4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로 총 60시간의 모니터링 시간 중 397건~94건(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음)이 방영되어 1시간당 6.6건~1.6건의 음주 장면이 방영되었으며, 이는 한 개 방송국 당 1시간에 2회 이상 음주 장면이 방영된 것이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청소년 스포츠 포함)에서도 술 광고가 빈번히 카메라에 잡혔다(최대 140건).

우리 나라의 스포츠 경기에 주류 브랜드 이름의 후원이 규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특히 청소년 스포츠 행사의 경우는 담배나 주류 브랜드의 후원이 금지되어 있다. 72